

북촌우물가

Andong Presbyterian Church News Letter

2005년 8월호

통권 제 150호



대한예수교
장로회
ANDONG
PRESBYTERIAN CHURCH

안동교회
ANDONG
PRESBYTERIAN CHURCH

7월 교우소식

새 교우

♣박병진씨(58년생), 윤여중씨(69년생) : 종로구 익선동 34번지 종로 오피스텔에 사신다. 사진 왼쪽에 있는 박병진씨는 약 2년전에 우리 교회에 다닌 적이 있다. 사업상 지방에 내려갔다가 다시 낙원사가 근처에서 사업을 재개하게 되어 새로운 마음으로 교회에 등록을 하게 되었다. 함께 일을 하는 윤여중씨(사진가운데)를 권유하여 교회에 같이 다니게 되었다. 윤여중씨는 처음 기독교를 접하게 되었으나 열심히 예배에 출석하고 있으며, 새가족 양육 공부에도 꾸준히 참석하며 신앙의 첫걸음에 열심을 보이고 있다.



♣이지연씨(79년생), 고남규씨 : 민혁근집사의 인도로 교회에 등록하게 된 이 부부는 종로구 재동 17번지에 살고 있다. 8월 11일에 오스트레일리아의 A.C.E.로 1년간 공부하러 떠나게 된다. 교회 등록 후 떠나는 유학인만큼 교인들의 기도가 많이 필요하며 이들 부부가 다시 돌아와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관심이 요구된다.



♣임성열씨(86년생) : 임성열씨는 종로구 원서동 8-3에 살며 안산공과대학 1학년에 재학중이다. 청년부에 소속되어 활동하고 있고, 우리 교회에 오기 전에는 계동교회에 다녔다. 부모님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혼자서 교회에 다니는 중이지만, 이번 몽골 단기선교에도 함께 참여하기로 하며 적극적인 교회활동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김관수씨(80년생, 사진 왼쪽), 박현웅씨(81년생) : 2부예배 성가대 솔리스트로 우리교회에 오게 되었다. 둘 다 경희대 재학중이고, 김관수씨는 베이스를 박현웅씨는 테너파트를 맡고 있다. 김관수씨는 시흥교회의 세례교인으로 성가대에서 봉사를 하다가 우리 교회에 오게 되었고 박현웅씨는 성북교회에 다녔었다.



♣ **김신일**씨(76년생) : 김신일씨는 강원도 철원 출신으로 부모님과 가족이 철원에서 감리교인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믿음의 가정에서 왔다. 이번에 교회옆에 있는 기무사에 발령을 받아 와서 군인 아파트인 소격동의 소격아파트에 살고 있다.



♣ **박태환**(71년생), **조성연**씨(71년생) : 이들 부부는 오스트레리아에서 무지개장로교회를 다녔다가 한국에 취업을 하게 되어 이곳으로 오게 되었다. 어린 딸 주원이는 18개월이고, 가회동 31-85에 사신다. 등록하기 전에 우리 교회 예배에 한두 번 탐방 겸 참석을 했고, 사는 동네 주변에 우리 교회 교패가 붙은 교우집들이 있어서 자연스럽게 정서적으로 우리 교회와 가까운 마음을 갖게 되었고 지리적으로 가까운 안동교회로 등록을 하게 되었다. 박태환씨는 뉴스채널인 YTN에 피디로 근무하면서 지금은 <Global Korean>이라는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다.



별 세

☞ **홍상덕** 장로(70세) : 고 홍상덕 장로는 왕십리교회의 장로이며 홍은애 교우(추봉근 집사)의 부친이다. 20일(수) 별세하여 22일(금)에 왕십리교회 교회장으로 장례하였다.

결 혼

☞ **강혜미** 양(강신우·장인숙 씨 장녀), 9일(토) 오후 1시, 예배당.

출 산

☞ **추상욱**집사 **김은주**교우(추영일장로·김혜자권사 2남), 6월 29일(수) 득녀.

군 입 대

★ **박현규** 군(박병욱 목사·민경임 집사 1남), 4일(월) 군입대.

★ **정인철**(정경순 집사 아들), 8월 2일(화) 군입대.

축 하

☞ **박진령** 교우, 7월 10일까지 동예현 갤러리에서 민화종합전을 열다.

☞ **김덕경** 전도사(뉴질랜드 세인트앤드류장로교회, 김정호 집사·윤달현권사 아들), 10일 목사안수.

☞ **신진욱** 교우(백경원 교우 부군),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임용

출 국

☞ **이근종 김계영** 집사, 미국 자녀방문차 20일(수) 출국.

☞ **박정음** 장로 **염영순** 집사, 미국 친지방문차 22일(금) 출국.

☞이원석 신주연 교우, NY, Polytechnic University
유학차 25일(월) 출국.

이 사

♣추순자 집사, 구리시 평내동 대주파크빌 1차
1507-605호 ☎ 031-559-1218

감 사

♣이재근 교우(이순례 권사 부군), 칠순기념 7월 3
일 전교우 점심식사 대접.

♣박병욱 목사, 위임감사 7월 10일 전교우 점심식
사 대접.

♣이길원 권사, 7월24일 전교우 점심식사 대접.

♣김영석장로·최문수집사, 7월 31일 전교우 점심
식사 대접

새가족 만남의 날

7월 10일 2부예배 후 2005년 전반기 새가족 만
남의 날 행사를 가졌다. 1부예배와 2부예배 시간에
전교우에게 소개하고 환영하는 시간을 먼저 가졌
다. 예배 후 친교실에서 진행된 새가족 만남의 날
행사에는 본교회 장로들과 교역자들, 교구장과 선
교회장들이 함께 참석하여 환영하였다.

점심식사를 같이 하였고, 식사후에는 담임목사님
의 환영인사말이 있었다. 이어서 새가족들에게 본
교회의 장로님들 등 교우들을 소개했고, 새가족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이본장로는 안동교
회의 특징과 역사를 간단하게 새가족들에게 소개
함으로 새가족들이 교회를 더욱 친근하게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이번에는 수요찬양팀에
서 찬양을 준비하여 함께 부름으로 분위기를 더욱
돕구어 주었다.

교회에서는 새가족들에게 기념사진이 들어있는
액자를 선물로 주었고, 해당 교구에서는 교구장들
이 화초가 있는 화분을 선물로 주면서 예수안에서
믿음이 자라는 새가족이 되기를 기원하였다. 박병
욱목사는 폐회기도로 마무리하기 전에 새가족들과
함께 구호를 외치면서 새롭게 출발하는 한 가족의
하나됨의 의미를 더욱 굳게 하였다.

이날 행사를 위해서 새가족 봉사자인 이성분집
사가 포도, 귤, 방울토마토 등 과일 일체를 준비하
였고, 김민수 집사가 망고주스 8병을, 박정희 집사
는 집에서 당근 케익을 만들어와 정성껏 제공하였

다.

2005년 1월부터 6월까지 등록된 새가족은 다음
과 같다.

1월 : 최혜영, 문홍숙, 신수정, 홍임정, 안영미,
조혜자, 권도운

2월 : 민남홍, 이서희, 최은성, 박배규, 장은미

3월 : 이현순, 김동환, 김미향, 오영숙, 김용찬,
이승희

4월 : 차복자, 윤철선, 이주석, 이명희, 김옥선

5월 : 김수화, 박남수

6월 : 김수현, 박금옥, 최인성, 이효순

총 29명이 등록하였고, 이중 현재까지 예배에
출석하며 교회에 정착한 인원은 19명이다.



구역연합예배

올해 상반기를 마무리하는 구역예배를 7월 15일
(금)에 연합예배로 드렸다. 류남영 권사의 사회, 송
숙연 권사의 기도와 민경숙집사의 헌금기도로 진
행되었다. 박병욱 목사는 이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하심”이라는 설교를 통해 교육관 리모델링과
본당 증축에 관한 비전을 말하면서, 교회가 지향하
려고 하는 교육과 선교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한
마음과 한 몸된 교우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하여 힘써야 할 것을 말씀하였다.

점심식사는 6교구, 7교구, 특별교구에서 카레라
이스를 만들어 예배에 참석한 이들에게 제공하였
다.

예배국 헌신예배

예배국 헌신예배는 17일 오후 2시 30분에 총회
순교자기념선교회 순회예배와 겸하여 드렸다. 예배
국 고문인 조기현장로가 사회를 보았고, 홍세진권
사가 기도를 하였다. 이용삼목사는 사도행전 7:54-
60의 본문으로 “서 계신 예수님”이라는 제목하에

설교를 하였다. 또한 총회순교자기념선교회 위원장이 CD로 영상물을 준비하여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다.

몽골선교를 위한 콘서트

7월 10일 오후 2시에 청년부 CCM 콘서트가 있었다. 이번 콘서트는 다른 때와는 다르게 청년들만의 밝고 활기찬 모습을 많이 볼 수 있게 준비하였고 특히 CCM 가수 에스더를 초청한 콘서트였다. 청년부 회장인 서동진과 이상혁의 독창으로 시작된 콘서트는 배규상과 윤해숙의 재치있는 맨트들로 많은 웃음을 주었고 무언극에서는 주님을 생각하며 울음을 보여주었다.

또 청년들의 문화 중 하나인 랩송과 CCD(Contemporary Christian Dance)는 많은 교인들에게 도전을 주었다. 다들 특별한 달란트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지만 대부분의 청년들이 참여하여 간단하지만 어려웠던 수화를 같이하며 하나된 모습을 보여주었다. 초청가수인 에스더 자매의 찬양 소리는 매우 감미로웠고 마지막에 청년들을 위해 기도해주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우리교회 중3학년 이기쁨이 찬조출연한 피아노 3중주도 있었고 제작년 몽골선교를 다녀온 김승희 자매의 간증은 새로운 도전을 주어 콘서트를 은혜스럽게 마쳤다. 콘서트 후에는 에스더 자매와 많은 교인들이 다과를 나누는 시간을 가질수 있었다.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

이번 여름성경학교의 총회주제는 “하나님나라와 문화”로서 문화의 세기를 살아가는 미래의 주역들이 세상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문화와 가치를 발견하고, 기독교적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며 적극적으로

로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만들어 갈 것을 배우게 되었다. 유치부는 7월 16일과 17일 교회 유치부실에서 류금주목사의 예배인도와 이성철목사의 설교로 시작하였다. 성경공부와 물놀이, 인형극, 장기자랑 등 다채로운 시간을 가졌는데 촛불기도회 때는 아이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한 사람씩 나와서 표현하였다. 한편 아동부는 7월 24-26일에 조치원의 청소년 수련원에서, 중고등부는 7월 22-24일에 시도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라는 주제로 여러 프로그램과 더불어 Q.T.에 대하여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유치부 여름성경학교>

늘푸른교실 방학 중 모임

늘푸른교실 여름방학 중 모임이 7월 27일에 있었다. 이희창선생의 찬양인도와 예배, 영계백숙으로 정성껏 준비한 점심식사 후에 회원들은 조정귀권사의 진행으로 레크레이션의 시간을 즐겼다. 또한 이날도 이경복 집사가 미용봉사를 해주어서 10여명의 회원이 이발을 하였고, 7월과 8월 생신을 맞으신 분들을 축하하는 시간도 가졌다. 무더운 여름이지만 더위를 이겨내고 평소와 같이 많은 회원들이 참여하여 반가운 얼굴들도 만나고 말씀도 들으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7월담임목사동정

- 4일 목회자 콜로키움 참가
(고용수목사 주관)
- 6-8일 북 고성 남새온실 농장 방문
- 11-12일 총회 주관
생명 살림 목회정책 세미나 발제

총회·연합회·교계 소식

생명 정의 평화운동 지역본부 발대식 및 심포지엄 개최



남선교회 전국연합회(회장:홍희천) 생명·정의·평화운동본부(본부장:표명민)는 지난 7일 연동교회에서 지역본부 발대식 및 생명 정의 평화 심포지엄을 열고 창조질서 회복과 지역 및 세대간의 갈등 해소, 윤리와 도덕 그리고 가치관 확립 등을 위해 평신도들이 앞장서기로 다짐했다.

창립 80주년을 계기로 출발한 남선교회전국연합회의 생명 정의 평화운동은 총회 생명살리기운동 10년과 연계해 지난해 선포식을 갖고 오는 2014년 8월까지 10년간 남선교회 평신도운동의 일환으로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남선교회전국연합회 임원과 수도권 및 이북지역 남선교회연합회 임원 및 회원, 생명정의평화 운동본부 임원 및 각분과장 등 3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심포지엄은 지역본부 발대식과 선임장 수여, '하나님의 생명 이해'를 주제로 한 심포지엄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하나님 나라의 생명 이해' 제하의 강의를 통해 이성희목사(연동교회)는 "오늘날 인간복제를 비롯한 자살의 증가와 사형제도 존속, 낙태, 적자 생존의 자본주의 등을 통해 생명 경시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면서 "교회는 생명운동의 중심이 되고 사회에 대한 양심의 소리가 되기 위해 교인들로 하여금 생명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지역본부 발대식 및 심포지엄은 총회 사무총장 조성기목사의 '생명을 살리는 교회' 제하의 설교와 회장 홍희천장로와 본부장 표명민 장로의 인사, 지역본부 조직발표, 선임장 수여, 행동강령 제창, 조성기목사의 축도로 개회예배를 드린데 이어 심포지엄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본 교단(장로교 통합)

교세 4% 성장

제90회기 교세 증가가 4퍼센트 가까운 성장율을 기록, 뚜렷한 증가세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월 25일 열린 총회 통계위원회(위원장:손달익)에 보고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4년 12월 31일 현재 본 교단 교세는 2개의 노회가 늘어 총 62개 노회 산하에 7천1백58개 교회에 2백48만 9천 7백17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교회 수와 교인 수에 있어 각각 1백80개 교회(2.58%)와 9만4천3백94명(3.94%) 증가한 것으로 50개 교회와 6만6천3백21명 증가에 그쳤던 전년도에 비해서도 괄목한 만한 성장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교인 수 증가에 있어서는 지난 88회기 5백 89명 증가에 그쳤던 반면 이후 2년 동안 증가율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 또한 교회 성장 위기론이 확산된 가운데 긍정적인 변화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만사운동 전개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경우 노회수 대비 1개 회 미만의 증가 추세를 보이던 교회 신설 또한 3.5배 이상의 변화로 교회 개척을 통한 꾸준한 교세 성장의 긍정적 지표로 분석되었다.

지난해에 이어 전산 입력을 통해 진행된 교세 통계 보고 또한 시행착오를 대부분 해소하고, 안정적으로 진행돼 전년도에 비해 빨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본 교단 목사와 장로는 전년 대비 4백 28명과 6백90명 증가해 3.91퍼센트와 3.40퍼센트 증가에 그쳤으나 권사와 안수집사의 경우는 각각 6, 786명(8.66%)과 2, 619명(6.55%)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한 항목이 되었다.

노회별 통계에 있어서도 교세의 변화 추이는 전년 대비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새롭게 분리된

포항노회와 포항남노회, 군산노회와 익산노회를 제외한 58개 노회 가운데 교인수의 감소를 보인 노회는 16개 노회, 증가세를 보인 노회가 42개 노회로 전년에 15개 노회가 감소, 45개 노회가 증가세를 기록한 것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다만 교회 수에 있어서는 12개 노회에서 총 41개 교회가 감소한 반면, 7개 노회는 전년과 변화가 없었고, 39개 노회에서 모두 2백16개의 교회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회별로 가장 두드러진 성장을 기록한 노회는 인천노회가 주안교회(나경일목사 시무)의 이전과 이후 성장에 따라 전년 4만6천3백39명의 교인이 7만3천3백23명으로 무려 2만6천9백84명이 증가, 증가율 1위를 기록했고, 이어 전년도에 1만 명이상이 증가, 증가율 1위를 기록했던 평양노회도 1만1천5백15명이 증가, 전년 수준의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통계위원장 손달익목사는 "교회들의 전산화 수준 제고로 인해 전년에 비해 통계 집계가 순조롭게 진행됐다"면서 전년 대비 유일하게 감소를 기록한 '전도사'의 경우는 "아직 이 부분 통계 입력이 이뤄지지 않은 노회도 있으나, 전도사에 대한 자격 규정을 보다 엄격히 적용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계위 보고는 제90회 총회 보고 후 확정된다.

서울노회 교회학교사 출간



서울노회 교회학교아동부연합회(회장:최종훈)는 지난 18일 신일교회에서 동 연합회 50년사 출판 감사예배를 드리고 출판기념회를 가졌다.

감사예배 이후 거행된 출판기념회는 편찬위원장

이승철집사(을지로교회)가 그동안의 경과를 보고한 데 이어 이승하목사(해방교회 시무)의 축사와 서울노회장 이효종장로의 격려사로 진행됐으며 집필자인 김봉익목사(서울노회 은퇴)에게 감사패를, 50주년 기념사업위원장인 오오근장로(남대문교회)와 협동총무 김영훈집사(영락교회)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회장 최종훈집사(광장교회)는 "지난 1998년 출판을 계획한 이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집필과 제작을 진행해왔다"고 밝히고 "서울노회 아동부의 역사 뿐 아니라 본교단 교회학교가 걸어 온 역사의 한페이지로 남겨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발간된 50년사에는 서울노회 교회학교 연합회의 발족 초기의 활동상과 1950, 60년대의 연합회 주요 사업, 각종 행사 및 대회에 대한 문서·사진 자료가 빼곡히 담겨있다.

한편 이날 감사예배는 동 연합회 선임부회장 구정두장로(금성교회)의 인도와 서울시연합회 초대회장 최태영장로(응암교회)의 기도, 부노회장 광동선목사(신암교회 시무)의 '발자취를 남기는 이유' 제하의 설교로 드러졌다.

2005 피스컵코리아

축구대회 불참 촉구

본교단 총회는 전국노회 앞으로 통일교가 주최하는 2005 피스컵코리아 축구대회에 불참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총회장 김태범목사는 지난 4일 전국노회에 보낸 공문을 통해 "피스컵코리아 축구대회는 통일교 포교활동과 문선명 우상화의 일환으로 준비된 대회"라면서 "이러한 사실을 전국교회에 적극 홍보해 기독교인이 피스컵코리아 축구대회에 참여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촉구했다.

총회장과 총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공동 명의로 발송된 지난 공문에는 7월 15일부터 24일까지 개최된 피스컵코리아 축구대회는 "통일교가 한국 축구 열기에 편승해 스포츠를 통한 포교활동의 장을 마련하고 또 문선명 우상화의 일환으로 준비된 대회"라는 사실을 지적하며 전국교회의 적극적인 대처를 강조 했다.

특히 지난 공문에는 "총회가 그동안 통일교에

대해 몇 차례 이단과 사이비종교로 결의하고 성명서 발표와 불매운동 전개 및 자료 배포 등의 활동을 펼쳐왔다"면서 "그러나 통일교는 막대한 자금을 동원한 포교활동을 전개해 그 세력을 점차 넓혀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문에는 또 "최근 통일교가 훈독교회라는 이름으로 포교활동을 펼치고 있어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면서 "전국노회가 앞장서 통일교집단의 포교활동에 경계해 강력히 대처할 수 있도록 홍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

에큐메니칼권과 복음주의권 단체 협력 가능성 확인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는 지난 18일 서울 강북구 우이동에서 정책협의회를 열고 복음주의권과 에큐메니칼권이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는 공동의 목적을 위해 협력할 수 있다는 데 의견을 함께 했다.

정책협의회에는 대표적 복음주의 단체인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에 뿌리를 둔 교회개혁실천연대의 구교형사무국장이 참석해 복음주의권의 사회선교운동인 선교·성서·통일한국 등 이른바 '3한국 운동'을 소개하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사명에는 에큐메니칼과 복음주의권 사이에 큰 차이점이 없다고 설명하며, 협력운동의 가능성을 확인했다.

이번 정책협의회와 관련해 박천웅목사는 "그간 산발적으로 진행되어 오던 기독교사회운동을 재편해 활성화하는 것이 이번 모임의 취지고 특히 그동안 평행선을 그어 오던 에큐메니칼권과 복음주의권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제자로서 서로 협력하고 공동의 목적을 위해 힘을 합쳐나가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은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밝혔다.

다.

박 목사는 "기독교계 사회운동단체들이 70, 80년대의 운동목적에 메달려 있을 때는 지났다"면서, "앞으로 이어나갈 모임을 통해 한국적 기독교 사회운동의 모델을 만들고 이를 시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서울YWCA 'EM 무료분양식'

서울YWCA(회장:김형)는 유용한 미생물 EM (Effective Microorganisms)과 '지렁이화분 보급을 통한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로 음식물 쓰레기 제로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에 지난 16일 서울YWCA 지하3층 교육실에서 지난 5월 이어 두 번째 'EM 무료분양식'을 가졌다.

이날 분양식에서는 생활 속 EM 활용을 위한 비디오 시청, EM을 활용한 남은 음식물 퇴비화를 주제로 한 강의, EM 발효액 만들기 체험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영락교회, 정상화 진일보

당회 내분으로 촉발된 서울노회 영락교회(이철선목사 시무) 사태가 해결의 실마리를 보여 정상화에 한 걸음 다가섰다.

영락교회 수습전권위원회(위원장:김태복)는 지난 21일 영락교회에서 수습당회를 열고, 그동안 정지했던 당회장권과 당회권을 8월 1일부터 모두 회복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또 실질적 해결책으로 제안한 장로 순환 휴무제는 8월 이후의 정상당회를 지켜본 뒤 9월 말경 시행여부를 최종 결정짓기로 했다.

수습전권위의 이같은 결정은 최근 시무장로 전원이 휴무제 동참에 서명하는 등 교회의 분란을 막고 당회의 진정한 화해를 모색하겠다는 의지를 행동으로 여러차례 보여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수습전권위는 이날 결정 사항을 7월 마지막 주 일 오후에 열린 제직회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수습전권위원장 김태복목사(홍익교회)는 "사태 해결의 중추역이라고 표현하지는 않겠다"고 조심스럽게 말하면서도, "당회원들간의 신뢰와 믿음이 상당부분 회복된 것만은 사실이라 조만간 원만하게 해결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생명살리기운동 "신학적 기초 제공"

생명살리기운동 10년에 대한 신학적인 기초를 제공한 총회 산하 연구단체들이 시범 사업 개발과 모범사례 제시 등을 통해 생명살리기운동 활성화에 앞장서기로 했다.

총회 산하 연구단체협의회는 지난 8일 총회 회의실에서 제4차 정기총회를 열고 회장에 김종렬목사(목회연구원)를 비롯한 현 임원을 유임시키는 한편 생명살리기운동 시범사업 개발과 모범사례 제시, 자문위원회 구성 등의 사업계획을 수립했다.

동 협의회는 이날 총회를 통해 부회장 2인을 확대해 약간 명으로 변경하는 정관개정안을 통과시킨 후, 현 임원을 유임시키는 한편 부회장에 정경호교수(영신대) 차종순총장(호남신대) 등 2명을 추가로 선출했다.

동 협의회는 또 생명살리기운동 10개 주제 중에 5개 주제를 선정해 심층적으로 연구하기로 하는 한편 총회가 생명살리기운동 시범노회로 선정한 노회와 연구소를 연계해 실천방안과 적절한 모델을 개발해 보급하는 일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협의회는 △회원 확대 및 자문위원회 구성 △도서 보급과 세미나 실시 △연단협과 총회 생명살리기10년위원회간의 정책협의회 △연구도서 출판 등의 사업계획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회장에 유임된 김종렬목사는 "총회가 전개하고 있는 생명살리기운동10년의 신학적인 기초를 제공할 연구도서 '하나님 나라와 생명살림: 생명살리기운동10년의 신학적 기초와 방향'을 전국교회 앞에 내놓았다"면서 "앞으로는 신학적인 연구 방향을 재정립해서 보다 실제적인 내용을 담은 메뉴얼 책을 발간해 한국교회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에큐메니칼 지도력 훈련

총회 에큐메니칼지도력 훈련세미나가 지난 7월 4일부터 6일까지 경기도 광주군 실촌면 건업리 소망수양관에서 열렸다.

한국교회 차세대 에큐메니칼 지도력 배양과 국내외 목회와 선교 현장, 에큐메니칼 기구 등에서 사역 중인 인재들 간의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 총회 에큐메니칼위원회(위원장:안영로)에서 마련한

이번 세미나는 에큐메니칼운동에 대한 신학적 고찰과 성서 연구를 비롯해 총회의 21세기 에큐메니칼 정책 방향에 대한 소개와 현대 에큐메니칼 운동에 대한 지도자들의 현장감 있는 소개에 이어 총회 에큐메니칼 정책과 인적 자원 개발을 주제로 한 종합토론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이형기교수(장신대 명예교수)와 이범성교수(한남대)가 에큐메니칼운동에 대한 역사신학적 측면과 선교신학적 측면에서의 조명을 시작으로, 총회 사무총장 조성기목사가 총회의 에큐메니칼 정책의 방향에 대해 소개했다.

제2일과 3일 아침 시간에 진행된 성경공부는 △바울, 로마제국, 에클레시아 △바울의 영성과 지도력을 주제로 배현주교수(부산장신대)의 인도로 진행됐으며 안재용박사(전 CCA총무)와 백도용목사(교회협 총무)가 세계교회와 국내 교회를 나누어 현대 에큐메니칼운동에 대한 개관을 소개했고, 이어 장운재교수(이화여대)가 '한국교회와 에큐메니칼운동'을 주제로, 유경동교수(감신대)와 임희숙목사(아시아기독교여성문화연구원)가 경제윤리와 여성의 관점에서 에큐메니칼운동과 평화의 문제를 발표했다.

70여 명의 참석자들은 에큐메니칼 운동의 전반을 역사적으로 선교신학적으로 살펴봄으로서 이해를 증진하는 한편, 성경공부와 함께 '그리스도, 우리의 평화'를 주제로 구성된 에큐메니칼 예배를 통해 새로운 헌신을 다짐하기도 했다.

※[총회·연합회·교계 소식]은 한국기독교공보(<http://www.kidokongbo.com/>)를 참고하였습니다.

북존우물기

2005년 8월호 · 통권 제150호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인종교회

발행인 : 박 병 욱

편집인 : (교회소식) 구희숙

(교계소식) 이성철

발행일 : 2005년 8월 7일